

*
황정옥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무용복지와 참여

1. 참여와 자기 결정
2. 커뮤니티댄스에서의 자기표현

III. 커뮤니티댄스의 복지 시스템

1. 사회적 연대 의식과 사회복지무용
2. 커뮤니티댄스의 서비스 구조

IV. 결론

참고문헌

*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외래교수

논문투고일 : 2016.04.30.

논문심사일 : 2016.05.17.

게재확정일 : 2016.06.01.

The meanings of community dance as a social welfare dance

6

Hwang, Jeong-ok
Kyungshung Univ.

The welfare designed to promote public interests for happy life has taken its root in our life as a social welfare service structure and a (culture & arts) dance education program is provided during the process. The ultimate meaning implied in social welfare is an action plan to resolve the social factors of inequality and to present an alternative solution to promote happiness of individuals or wellbeing and satisfac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ommunity dance as a device for social welfare to examine the role and function of dance welfare from a social welfare perspective and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The community dance proposed as a public consideration is implemented in social welfare service structure and begins with the involvement of self-determination of a participant as a way of putting dance welfare into practice.

Self-expression in community dance plays a role of self-education for the purpose of self-actualization driven by self-determination. Therefore, dance welfare engages in retrospection of happy life through the attitude of self determination that determines social responsibility and judgment by acknowledging and expressing self through the inherent internal structure of dance.

The community dance that respects the dignity and potential of participants establishes the culture of respect and consideration in the service system of social welfare and plays a key role in raising awareness of public interests.

Social engagement as a necessity of social welfare and a method of practice is the service structure of community dance activated and driven by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community.

<key words> social welfare, dance welfare, social welfare dance, community dance, dignity, social solidarity, self-expression, self-determination
주요어) 사회복지, 무용복지, 사회복지무용, 커뮤니티댄스, 존엄성, 사회적 연대, 자기표현, 자기 결정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조건은 다양하다. 사회적 위치, 물질적 풍요, 문화 패턴의 가치 등이 그것이다. 예술을 소유하고 향유하던 특정 계급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오늘의 예술은 일반인의 참여를 전제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회 관여 방식에 의해 각 개인의 삶에 행복의 요소로 복지 영역과 가까워졌다.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이념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 예술로서의 커뮤니티댄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형성되고 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춤을 춘다.’라는 행위 조건을 말하는 것을 넘어 사회에 관여하는 태도와 참여 행위가 커뮤니티댄스이다.

사람들은 불평등의 조건에 기민하게 반응한다. 이는 불평등이 행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행복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삶은 공동체적 삶, 즉 사회적 연대가 유지되는 사회 구조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과 안녕감이 유지되기를 갈망한다. 근대 사회 이후 이와 같은 바람은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사회 시스템적으로 사회복지가 확충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복지는 실천적 개념으로 행복하고 만족적인, 안정적인 삶을 위해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개인의 행복에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요인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공적 부조로서 사회복지의 복지사업이라는 서비스 체계로, 법제화된 제도로 우리 사회 구조에 작동한다. 사회와 적절한 관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나 시설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역할인 것이다.

무용복지는 복지의 일반론적 의미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무용이 사회복지서비스로 제도(시스템)에 안착될 경우 서비스 내용(프로그램)으로 무용을 전달하는 구조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체계에서의 커뮤니티댄스는 참여성이 내적 구조로 작용하며 커뮤니티댄스의 실천 구조가 서비스로 작동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무용으로서 커뮤니티댄스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커뮤니티댄스에서 참여의 의미가 지니는 복지적 기능과 서비스 구조로 제시되는 커뮤니티댄스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복지의 일반론적 의미로서 무용체험을 탐색하고 사회복지시스템으로서 커뮤니티댄스의 서비스 구조를 살펴보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복지의 의미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것으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론적인 논의와 사회 서비스 체계로서의 제도적 측면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양가적 측면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무용체험의 본질과 프로그램이 전달되는 서비스 체계(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참여와 자기 결정

사람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도 직감한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이 행복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왜 삶이 불행한가에 대한 불안과 불만에 갇히게 된다. 행복하기 위해 인간은 욕구와 필요가 따른다.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욕구 단계로서 생존(의,식,주와 같은 생존의 문제)과 직결된 필요이기도 하고 개인의 사회적 욕구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한 필요가 요구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Maslow, A.(1943)의 동기이론(hierarchy of need)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만족을 느끼게 되는 자아실현이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에 해당된다.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존과 안전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행동에서 비롯되는 소속감과 타인의 인정은 자아실현을 위한 단계이자 과정이다. 따라서 자아실현이라는 만족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속에 의한 안정감이나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비롯되는 존중, 자존감의 문제가 따르게 된다. 개인의 행복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상태(복지, 행복)는 결국 자아실현과 존엄성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자아실현은 전인whole person적 존재를 교육하고자 하는 오늘 날의 교육과 관계 맺는다. 교육에서의 자아실현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로 한 개인의 잠재적 능력과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고유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첫 과정이 된다.

무용이 교육의 도구로 활용되었을 시대의 학교교육이 산업화 시대의 환경에 최적화된 것이었다면, 무용이 교육의 목적이 된 시기의 무용은 탈 산업정보사회에서 문맹이던 학교교육의 대안이었다. 즉, 보편성과 평준화 지향의 환경에서는 잠재되어 표면화 되지 못하던 개별적 존재로서의 자아와(감각과) 독창적인 개체로서의 자기(자아)표현을 타자 인식(이해)과 관찰을 통한 배려(타인을 통한 자기 인식)로 의식하는 교육으로서의 무용이다(한혜리, 2016:16).

개인은 사회 구조에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하기도 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작동하기도 한다. 이는 자기만족이나 자기기만의 교차점에 위치하게 된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탐색해 가는 것은 삶의 연속성에 의해 묘사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엄성의 성격과 맞게 된다. 사회복지 시스템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에 불합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도로 접근해 가는 실천적 영역이며 그 안에는 행복한 삶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잠재해 있다. 자신의 의지로 삶을 결정할 수 없는 외적 조건에 휩쓸리기 쉬운 사람들에게 공공적 배려로 제안되는 커뮤니티댄스는 사회복지서비스 구조에서 실현된다. 공동체적 만남과 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사회에서 시작되었던 커뮤니티댄스는 의사소통 구조에서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한다.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나 기준, 관념에 의해 떠밀려가는 자아가 아니라 자아 인식에서 비롯된 자기표현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될 때 누리게 되는 존재감이다. 커뮤니티댄스의 무용체험은 자아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참여하는 동기, 경험의 결과 등 여러 요인들이 체험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체험에서 인식하게 되는 통로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무용은 감응의 주체로서의 몸을 매개로 자신이 인식하는 바깥 세계에 관여하고 또 통합한다. 이 과정에서 자아가 결정된다.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는 자기 결정의 체험은 삶의 만족, 자아실현의 행복에 다가서는 행로가 된다. 그러므로 커뮤니티댄스는 무용복지의 실천 방식으로 참여 주체의 자기 결정 참여성을 전제로 시작된다.

2. 커뮤니티댄스에서의 자기표현

사람 간의 소통 구조가 사회를 형성하며 예술은 소통을 전제로 향유된다.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과 상호 교류하고자 하는 것은 일차적인 인간의 욕구

이므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아상은 자기를 표현하고 내보일 때 비로소 마주하게 된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개인은 가족, 직장(학교) 등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고 다듬어지기에 모호하거나 확정적이라고 믿어 왔던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의식하지 못했던 사실과 대상, 사물에 대해 의식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비춰지는 모습을 발견한다.

행복한 삶의 조건이 되는 자기 결정의 태도는 발견하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통찰과 무한한 미지의 세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상상 공간속에서의 가능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자극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감각과 자신이 인식하고 의식한 것을 표현해내는 과정이 요구되며 그 가운데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를 인식하는 자기 결정, 즉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를 테마로 삼아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뒤로 한 발짝 물러나 자신의 경험과 내적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입니다(Bieri, P. 문항심 역, 2015:14).

인류의 문화도 개인의 삶도 결국 개인의 표현의 결과로 쌓여진 역사이다. 자신이 인식하는 세계에 대한 체험은 이해의 결과이며 스스로의 삶을 결정짓는 토대가 된다. Dilthey, W.는 인간의 체험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기며 감정이나 의지 또한 자아형성에 관여한다고 보고 삶의 표현으로서 이해를 강조한다. 커뮤니티댄스에서의 체험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와 세계에 대한 통찰을 전제로 한다. 참여를 통해 타자와 소통하고 자신이 인식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와 감정, 생각, 상상력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인간성을 길러주는데 있어서 자신의 고유한 판단력을 개발하고 실행하도록 가르치는 일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Gadamer, H. G. 손승남 역, 2004: 15) 하지만 교육에서 결정적인 것은 궁극적으로 성장하는 세대로 하여금 자기 활동성을 통하여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결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일입니다(29).

인간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의지로 목적을 설정하고 노력하여 이에 도달하는 존재이기에 부단히 노력을 다하는 자기 교육을 통해 성장한다. 따라서 오늘 날의 교육의 미덕이 자아실현이라면 이에 도달하는 방법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짓고자 노력하는 자기교육이 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 관계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될 수 있다.

사회 관여로 시작하는 커뮤니티댄스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싶은가와 같은 인식(사회적 논쟁)을 통해 참여 주체의 체험을 결정짓는다. 논쟁의 기반을 통해 관여하고자 하는 문제는 결국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세계상이며 무용 체험을 통해 각기 다른 영역과 관계 맺는 어떤 형태나 방식, 대상 및 사물에 대한 인식과 표현은 개인의 자아상이 된다. 따라서 커뮤니티댄스에서의 자기 표현은 자기 결정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자아실현을 위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자기교육 기능의 역할을 수행한다.

커뮤니티댄스는 자아실현이라는 바람을 위해 참여자의 존엄성을 고려한 서비스 구조로 다가섬과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참여의 질을 통해 존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시해야 한다.

존엄성은 자기 존중의 사고와 연관되어, 누구나 각자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감정과 행위의 패턴에 대한 의미도 포함합니다(Bieri, P., 문향심 역, 2015:86).

상호작용의 질은 온전한 참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온전한 참여란 “학습한 지식과 기량이 스스로에게 각인되어 유지된다는 뜻”(Sorrell, J., Rotherts, P. & Henley, D., 오수원 역, 2015:72)으로 해석된다면 참여자의 존엄성은 삶의 이해와 표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이 아닌 삶속에서 누리고 우러나오는 믿음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커뮤니티댄스는 참여자의 모습을 변화시키거나 일정한 형태로 발전하도록 종용하는 억압이나 통제를 거부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은 개인의 독립성과 주체성의 상실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도록 참여 주체의 독자성인 개성과 사회에 대한 인식을 지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인식해야 하는가를 공유하는 것이 커뮤니티댄스에서의 체험 방식이다.

커뮤니티댄스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참여의 공간은 공동체 구성원 혹은 공동체간의 독립적인 삶의 태도와 가치가 상호작용하는 곳이다. 무용은 자신이 누구인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지 등을 깨우쳐 준다. 이와 같은 깨우침은 자기표현을 지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기 결정의 경험이다.

우리가 상호주체성intersubjectivité으로 부르고자 하는 세계를 곧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무엇인지, 타인들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세계에 속합니다(Sarte, J. P., 박승태 역, 2012:66).

우리가 자기표현을 통해 알아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자신의 모습이나 자신을 위한 타인(대상)의 시선이나 자신과 맞서 싸우게 되는 타인(대상)의 존재 등의 연관이다. 우리가 알아채는 인식의 순간은 보편적이라 믿었던 인간 본연의 모습을 결정짓는 수많은 조건들에 변화를 가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이 발현되는 지점이다. 알아채고 마주하고 새로운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채는 감각, 다른 것들의 모습을 발견하거나 드러내는 인식(상징)의 과정에서 이다. 따라서 커뮤니티댄스의 무용체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기 결정의 삶은 개인차원에서 더 나아가 공동체 차원의 상호작용과 독립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즉 사회적 책임으로 획득되는 인간의 보편성의 토대가 된다.

Ⅲ. 커뮤니티댄스의 복지 시스템

무용복지의 기능은 무용이 지니는 내적 구조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표현함으로써 사회적 책임¹⁾과 판단을 결정짓는 자기 결정의 태도를 통해 삶의 성찰에 관여한다. 이와 같은 경험이 제공되는 사회 네트워크로서 커뮤니티댄스의 서비스 구조는 사회복지시스템과 관련 맺으며 사회복지시스템의 서비스 내용(프로그램)인 사회복지무용으로 작용한다.

1. 사회적 연대 의식과 사회복지무용

무용복지의 필요성은 이해관계 집단(공동체) 간의 필요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외적 조건이 잘 갖추어진 집단은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다. 연대하지 않아도 각자의 삶을 사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연대로서의 복지를 요청하는 집단은 불평등의 위치에서 서있는 이해관계로 엮일 수 있는 집단이다.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필요성, 삶의 조건이라 볼 수 있는 생존과 삶의 만족이라 볼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요청되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 그리고 사회적

¹⁾ 오늘 날의 사회적 책임은 연대와 배려를 전제로 한 책임을 의미한다.

위계에서 서있는 개인이나 집단, 즉 공동체가 사회적 연대를 필요로 하고 연대의 결과로 복지국가를 꿈꾼다. 따라서 복지국가에 대한 갈망은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에 의해 형성되게 되고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안착된다.

이해관계 집단 그리고 개인의 복잡한 관계에 의해 형성된 체제로서의 문화는 개인의 이익과도 관계 맺는다. 복지라는 것은 결국,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기에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복지에서의 개인의 욕구는 필요(need)의 의미로 해석된다. 인간은 누구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때의 이익은 잘 살기위해 혹은 변화하기 위해 성취하고 싶은 이익이다. 개인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필요의 욕구를 일컫는다.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용인되는 만족한 삶을 위해 적어도 이것만은 충족되어야 한다는 욕구 이기에 개인의 이기심이나 욕망desire과 다른 형태로의 욕구이자 필요이다.

문제는 모든 문제를 개인적 결함에서 찾으려는 현재의 문화, 즉 더 똑똑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지적인 사람이 되면 어떤 골칫거리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사고방식이다...통제는 더 큰 문화까지 뻗어나간다. 만일 민주주의에 참여해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면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행복하다고 느낄 것이다 (Andrews, C., 김정임 역, 2015:51-52).

개인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해결방법 못지않게 삶의 통제력을 잃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찰하는 사회적 책임은 행복의 나침반이 된다. 오늘의 문화는 사회적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의 삶에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한다. 개인적 문제를 제거하면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믿음은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기저로 작동한다. 그렇기에 사회적 현상이 구축되는 사회적 요인과 책임에 동참하고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문화 정체성을 구축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통제하여 사회 구조에 끼어 맞추려 하기보다 자기 자신과 타인,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경험하느냐는 관계 형성의 태도와 방법을 숙고하고 특별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 시대에 커뮤니티댄스는 공동체 삶에서 특별한 태도나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 예술적 사고가 일상에 유입되고 유지될 수 있는 실천방식을 고려하며 개입한다. 문화적 삶을 향한 적극적인 참여(관계의 인식)를 유도하고 모든 문화와 사회 구성원,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입장이 사회복지무용²⁾으로서 커뮤니티댄스의 접근성이기 때문이다.

²⁾ 사회복지의 실천 방식으로 투입되는 무용의 형태로 사회복지무용은 사회복지의 프로그램(내용)으로 작용한다.

무엇인가를 하고(이루고) 싶은 욕구와 자아실현을 위한 만족의 필요조건은 물질적 풍요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자본이 잠식한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 속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삶의 요소는 다양한 문화 참여로 타인과 관계 맺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표현이며 이 같은 참여무용에서의 자기표현이 존재의 삶을 이끌어준다. “탐욕을 버리고 세상과 연대하며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존재 방식,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 아니겠느냐”(이인, 2015:20)는 믿음은 인류의 소명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정책의 필요성을 요청하기도 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서비스(복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존재하고자 하는, 뿌리 깊이 타고난 욕구를 지니고 있다.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려는 욕구,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 타인과 관계 맺으려는 욕구, 이기심의 감옥에서 빠져 나오려는 욕구 등이다(이인, 2015:19).

사회적 유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육체적 활동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 유대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까닭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때 사회적 유대는 우리의 소명이 된다(Andrews, C., 강정임 역, 2015:44).

새로운 문화 형성은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견고하게 다듬는 것이다. 동질성으로 작동하는 특정 계급의 향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혜택으로 다가서는 무용이 사회복지무용이며 이는 동등한 수준의 참여와 경험을 전제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커뮤니티댄스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커뮤니티댄스 참여를 통해 체험하게 되는 예술적 상상의 힘은 자아를 인식하고 삶(문화)의 관계성을 알아채며 생명의 존엄성과 개인의 잠재력을 존중하는 존재적 삶에 대한 태도를 안겨준다.

예술적 상상력은 세계를 구성하는 조건이나 요소를 발견하게 해 주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던 대상과 사물에 대해 공감sympathy하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 사람의 마음에는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³⁾’가 자리 잡고 있다.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시선(감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관한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의 사적인 욕망desire에 의한 이익으로서의 판단과 더불어 공감이 가능한 공정한 관찰자의 시선을 통해서도 인식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커뮤니티댄스의 내재적 속성인 사회 관여로서의 연대 의식이다. 공감을 기초로 공공의 이익이나 가치를 위해 협력하고 소통하는 상상과 이해의 공간은 커뮤니티댄스의 체험의 순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3) Smith, A.의 용어로 인간의 타고난 도덕 감정moral sentiments을 일컫는다.(신정완(2015. 『“복지국가와 연대”,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90 참조)

정의는 모든 (성인) 사회 성원이 동료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적 배치를 요구한다. 내가 주장하는 참여 동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물질적 차원의 분배는 반드시 참여자들의 독립성과 '목소리'를 보장할만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둘째 조건은 제도화된 문화가치의 패턴들이 모든 참여자에게 평등한 존중을 나타내어야 하고 사회적 존중을 달성하는데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Olson, K., Fraser, N, 문현아 외 역, 2016: 232).

사회적 존중을 기초로 형성된 정의로서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불평등의 이해관계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연대의 필요에 의해 요청되었고 이와 같은 사람들과의 사회적 연대를 목표로 한다. 공감과 소통의 목적이 내재된 참여는 새로운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창조적 의지이다. 가치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댄스에서의 참여는 사회복지의 서비스 체계에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형성한다.

2. 커뮤니티댄스의 서비스 구조

오늘 날, 복지라는 의미가 일상과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복지라는 의미가 인류의 삶에 깊숙이 자리하지 못했다. Romnyshyn, Jhon, M.(1971)은 고대사회에서는 생활보호대책으로 중세에는 자선과 박애의 의미로 근대사회에서는 사회적 요인으로 복지의 의미가 시대적으로 변화해 왔다고 본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적인 문제로서 복지라는 개념이 작동했던 시대를 지나 근대사회에서는 복지가 제도적 모형으로, 시민의 권리로, 일부가 봉사를 하는 특수한 성질이 아닌 보편성의 문제로, 최저 조건의 조성이 아닌 최적 조건의 조성으로 변화해 온 것이다. 아울러 복지가 개인의 변화를 추구했던 이전과 달리 사회 개혁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자발적인 민간지원에 의존하기보다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복지의 개념이 문화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문제이다. 더욱이 사회보장 차원에서 복지welfare로 문화 향유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시민, 공동체가 참여 대상이 되었고 개인적 만족이나 변화와 성취, 취향의 징표로 읽혀질 수 있는 경험에서 벗어나 삶을 형성하는 구성요소로 문화와 예술 참여의 당위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문화권cultural right은 인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해되며 인간의

보편적 가치로 이해된다. 인간 활동의 특별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표현, 참여, 접근의 권리인 문화권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표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내적인 발전을 추구한다.⁴⁾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감성교육을 통해 인간이 공유해야 할 특별한 가치를 상상하고 공유하는 것이 (문화)복지 서비스의 구조이다.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개인의 무관심이 사회 구조 전체에 얽혀 작동하면 무감각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더 나아가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의미를 상실해 버리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커뮤니티댄스는 이와 같은 무감각이 지배해 버리는 구조에 관여하여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진지한 태도로 문제의 발생 구조와 힘을 인식하도록 상상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서비스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류의 가치가 위협받지 않는, 중요한 가치를 생성해 내는 논쟁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삶의 표현과 이해, 행복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둔 참여 경험의 상호작용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어떤 가치관을 품고 그것이 위협받는다고 느끼지 않을 때 사람들은 '행복'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것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는 개인 문제이든 공공문제이든 일종의 위기를 경험한다. 만일 그들의 모든 가치가 위협받는 것처럼 보이면 그들은 극단적인 공포의 위협을 느낀다(Mills, C. W. 강희경·이해찬 역, 2014: 25).

그렇기에 사회복지 서비스 구조로 무용(복지) 프로그램⁵⁾이 제시될 때 참여 주체가 이용자가 될 것인지, 향유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무감각에 의문을 가져

4) 정갑영(2007), “문화복지법제화 방안연구”, 문화관광연구원, 참조

5) 커뮤니티댄스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의 사회복지무용은 문화복지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무용프로그램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부처간 협력 문화예술교육사업’ 등에서 이루어지는 무용(커뮤니티댄스) 프로그램이 그 예이다. 대부분의 정책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무용(커뮤니티댄스)은 공적인 영역에서 보장해 주어야 할 대상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전 수요를 파악하여 진행하는 형태를 갖춘다. 특히 사회복지사업과의 접점에 있는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복지기관(아동, 노인, 장애인)에서 사전 수요를 예측하고 실행할 장르를 선택하는 사업 구조로 방문교육이 가능한 예술강사가 지원되는 형태이다. 그렇기에 단순히 복지사업 중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접근하거나 참여자를 대상화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예로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노인분야 시범사업(14),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장애인 분야) 기획사업 ‘활동가 파견지원사업’ (13~15)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범사업의 특징은 참여자와의 직접적인 소통과 관계형성으로 프로그램 내에 그들의 삶이 안착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다. 복지사가 조정자가 되거나 참여자가 소외된 채, 기획(교육)자의 의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의 개념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커뮤니티댄스의 목적성과도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시스템적인 문제를 넘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획일화·일반화하여 단정적으로 문제를 예단하고 개인적 취향을 고취시키거나 신체적·물리적 한계와 결함을 극복하거나 예술지식을 전수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참여 주체의 인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상 탐색과 접촉이 요구되며 이는 실제적 삶의 위치에서 연결되는 다양한 욕구와 문제, 환경 등 실제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참여자의 존재적 삶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참여가 보장될 때 자기인식과 자기표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야 한다. 문화 복지로 접근하고 있는 다양한 층위의 프로그램에서 참여자가 대상화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 주체가 필요로 하는 보편적 필요의 접근성을 간과하고 참여 대상의 성격을 일반화하고 대상화하는 것은 참여 주체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참여 체계에서의 참여자의 자기 결정을 고려해야 한다. 자기 결정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인가⁶⁾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삶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자신의 삶을 향유하는 것, 즉 감성을 이끌어내고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내적 구조로서의 자기 결정을 의미하며 이는 곧 커뮤니티댄스의 사회 관여 구조로써 기획 목적이 된다.

사회복지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렇기에 삶을 지향한다. 본디 사회복지란 당사자 입장에서 그 사업, 그 프로그램은 잘 누리다 보니 어느덧 당사자의 것이 되고, 당사자의 삶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김상진, 2015: 33-34).

전문가 그룹이 참여 주체를 대상화하는 관점은 다양하다. 단적으로 사회적 약자이기에 이 경험을 감사하게 여길 것이다. 신체가 불편하니깐 역동적인(움직임) 활동은 꺼려할 것이다. 예술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에 수준이 매우 낮을 것이다 등의 예단은 참여자들의 존엄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편한 시선이다. 참여 주체의 감정, 경험 그리고 공동체의 성격을 상상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보편적 필요가 무엇일지를 예견하는 것이 커뮤니티댄스나 무용교육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접근 태도이다. 그리고 특정한 장르나 기능을 제시하지 않으며 무용에 관한 지식(기능)이 아닌 무용을 통한 예술적 상상으로 발현되는 태도와 가치를 우선한다. 불평등은 행복의 반대 입장에 있는 유의어로 사회 관여로써 복지 서비스라는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무용 체험이 불평등으로 시작한다면 사회적 불평등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기에 사회복지무용의 실천은 개인의 가치 판단, 미적 판단, 문화 간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 참여 주체의 존엄성을 우선으로 한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의 존엄성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복지무용으로서 커뮤니티댄스는 진정한 인간 자유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개인과 사회적 책임을 확고히 하여 공공선 public goods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여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연대 그리고 공동의 목표와 정체성 인식 형성에 중점을 둔 시스템이다. 우리는 공감, 결속력, 공정성,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결집해야 한다. 사람들은 협력의 기회를 얻을수록 점점 더 협력의 힘을 믿게 되고 더욱더 협력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협력하는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자기 충족적 예언을 중단한다(Andrews, C., 강정임 역, 2015: 26).

⁶⁾ 사회복지에서의 자기 결정권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참여 주체의 결정권으로 말하는 것이나 본 고에서는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내적 구조로서의 자기 결정을 다룬다.

참여를 전제로 한 커뮤니티댄스가 무용체험을 통해 사회문제에 관여하는 실천적 행동과 의식을 전제로 사회통합이라는 산업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 왔다면 오늘날에는 형평성의 원리로 불평등한 입장에 있는 대상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력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가치 체계를 추구한다. 인류가 해결해야 할 소중한 특별한 가치가 무엇인지,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협력과 참여가 그것이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 간의 역사성(기억, 문화, 삶)을 공유하고 동시대의 공간에 위치한 각기 다른 영역에 있는 대상과 가치를 내적으로 연결 짓는 공감과 연대 의식은 커뮤니티댄스가 지니고 있는 구조로 오늘 날 사회복지 서비스 구조이기도 하다. 결국, 커뮤니티댄스에서 개인의 차원으로 읽혀질 수 있는 존엄성과 발전이라는 자기 결정의 삶은 자기인식으로부터 비롯된 자기표현을 통해 특별한 가치가 결정되고 공동체 차원의 참여와 협력으로 작동하는 커뮤니티댄스의 서비스 구조는 연대의 시작이자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는 사회복지의 목표이며 실천방식이다.

IV. 결론

행복한 삶을 위한 공공의 이익으로 복지는 사회복지 서비스 구조로 우리의 삶에 안착하였고 (문화예술)무용교육 프로그램이 그 과정에서 제공되고 있다. 사회복지에 내재한 궁극적인 의미는 개인의 행복 즉, 안녕과 만족으로서의 복지를 위해 불평등의 사회적 요인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실천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차원에서 무용복지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복지무용으로서 커뮤니티댄스의 의미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적 배려로 제안되는 커뮤니티댄스는 사회복지서비스 구조에서 실현되며 무용복지의 실천 방식으로 참여 주체의 자기 결정의 참여성을 전제로 시작된다.

커뮤니티댄스에서의 자기표현은 자기 결정의 동력으로 자아실현을 위한 자기교육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무용복지는 무용이 지니는 내적 구조로

자기를 인식하고 표현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판단을 결정짓는 자기 결정의 태도를 통해 행복한 삶의 성찰에 관여한다.

참여 주체의 존엄성과 잠재력을 존중하는 커뮤니티댄스는 사회복지의 서비스 체계에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형성하며 공공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의 필요이자 실천방식인 사회적 연대는 공동체 차원의 참여와 협력으로 작동하는 커뮤니티댄스의 서비스 구조이다.

참고문헌

- 김상진(2015). **대중문화로 배우는 사회복지 이야기**. 푸른복지.
- 신정원(2015). "복지국가와 연대",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가을의 아침.
- 이인(2015). **어떻게 나를 지키며 살 것인가**. 뜨란.
- 정갑영(2007). "문화복지법제화 방안연구", 문화관광연구원.
- 한혜리(2016). "교육프로젝트에서 무용의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7(1), 5-23.
- Andrews, C.(2013).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 북**. 한빛비즈.
- 강정임(역, 2015).
- Bieri, P.(2011). *Wie wollen wir leben?*. 문항심(역, 2016). **자기 결정**. 은행나무.
- Dilthey, W., **체험 · 표현 · 이해**. 책세상.
- 이한우(역, 2002).
- Gadamer, H. G.,(2000). *Erziehung ist sich erziehen*, 손승남(역, 2004). **교육은 자기교육이다**. 동문선 현대신서.
- Mills, Charles W.(1959).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강희경 · 이해찬(역, 2014). **사회학적 상상력**. 돌베개.
- Olson, K., Fraser, N.,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그린비.
- 문현아, 박건, 이현재 (역, 2016).
- Sarte, J. P.(1996). *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 박정태(역, 2012).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학사.
- Sorrell, J., Roherts, P. & Henley, D.(2014). *the virtuous circle: why creativity and cultural education count*, 오수원(역, 2015). **문화예술교육은 왜 중요한가**. 열린책들.